통일부 정례브리핑

2023.4.3.(월) 10:30, 구병삼 대변인(통일부)

이번 주 토요일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오후 3시에 국회·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고, 내일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장관은 4월 7일 오전 9시에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되는 통일연구원 개원 32주년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차관은 4월 6일 오전에 차관회의에 참석하고, 오후에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면담할 예정입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안에 대해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북한인권보고서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백브리핑 때 기록센터 쪽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읽고 수록했지만 구체적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개정본 전문은 지난달에 유엔 인권이사회 세미나에서 공개가 됐고 통일부도 북한인권과에서 세미나와 출장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보고서에서는 아직

전체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나와서 통일부가 조문을 입수 못 했다는 게 입장인지, 아니면 보고서에 수록이 잘못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보고서를 작성했던, 기술했던 시점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이 알려지기 전이었던 것으로 아마 추정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지만.

<질문> 영문판 발간은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추진 중이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내용이 이미 공개가 됐고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이 큰 악법으로 꼽히는데 정부가 이 법을 아직 모르는 상태라는 입장으로 나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혹시 내용을 보완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답변>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인권기록보고서 발간 때 이미 말씀드렸지만 2017년 이후 최근의 북한인권 실태를 기록했고 북한인권,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시행됐던 시기가 2020년이라고 가정한다면 2020년 이후에 북한을, 반동사상문화법이 시행되고 그 상황이 인권 문제에 실제로 적용된 다음에 탈북해 나오신 북한이탈주민이 매우 적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방금 일정 설명해 주시면서 6일에 차관께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국장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면담 취지 궁금하고, 어떤 내용 논의할 계획이신지 궁금하

고요.

지난달 장관께서 방일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차원인지.

<답변> 후나코시 국장은 일본 측 북핵수석대표입니다. 지난달 통일부 장관이 일본 출장 시에 한일 간 대북정책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하였고, 이번 면담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면담입니다.

<끝>